

# 어려운 불교경전 '우리말로' 쉽게 전해요!

### 불교경전번역모임 '불한당'... 도법 스님, 윤구병 등 참여

매일 첫째·셋째주 수요일 저녁 6시, 모두가 퇴근한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다.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불한당'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불한당은 '불교를 한글로 전하는 모임'이란 뜻으로 2013년 9월 창립됐다. 한문으로 쓰인 불교경전이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한번 번역해보자'라는 뜻을 모아 처음 시작했다. 모임을 최초 제안한 번역주 작가는 "불교의 대화적 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도법 스님과 윤구병 목사님에게도 납득을 얻어준 지인 윤구병 작가라면 불교와 우리말을 융합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 분께 처음 제안했다"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불교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처음 목표"라고 설명했다.

모임이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차례차례 10여 명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개인 직업을 갖고 낮에는 본업에 충실하지만, 발제를 맡은 때엔 1주일 동안 하루 2~3시간을 경전 번역 공부에 투자할 만큼 열정적이다.

백승권 前 화쟁위원회 사무국장은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모임 취지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한글로 뜻을 정리해 나가며 내 삶의 고민도 함께 풀어내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가치판단이 매우 넓어졌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불한당'은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원효대사의 <열반종요>, 지눌대사의 <수심결> 등 번역해왔다. 불한당이 한국 고승들의 경전을 중점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인도·중국불교가 성행하고 있지만 의상대사와 같은 한국 불교 명승들의 가르침도 매우 훌륭해 전승돼야 할 가치가 있다"는 도법 스님의 뜻이다.

지난 8월 19일 <수심결> 번역 과정이 한창인 불한당 모임에서는 도법 스님을 비롯해 번역주 작가, 박재현 화쟁아카데미 사무국장, 강영진 성균관대 국정대학원 교수 등 10여 명이 둘러 앉아 <수심결> 1~8 문답 요지를 번역하고 있었다.

이날 발제 담당은 박재현 사무국장도 강영진 교수, 이광호 레디앙 대표였다. 불한당은 매회 2~3명의 발제자가 배정된 부분을 한글로 번역해 오면, 다른 일원들이 번역본을 두고 서로 생각을 개진하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저마다 번역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읽을거리와 재미도 각각씩이다.

초창기에는 법성계의 '법' 한 글자만 두고 한 달을 토의할 만큼 열의가 대단했다. 번역주 작가는 "법'을 누군가는 우주로, 또 다른 사람은 흐름으로 해석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지만 어느 한 의미로 결론짓지는 않았다"면서 "해석하기에 따라 우주나 폭포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모든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회상했다.

불한당 일원이 갖는 궁극적 고민은 '이 번역 과정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모두가 읽기 쉬운 불교 경전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그들이 읽은 내용이 실제 삶에 유익하게 적용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날 도법 스님은 "우리가 법성계를 번역했다면 법성계의 '태어남의 시작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은 본래 없다'는 가르침을 통해 생사의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얼마 전 남원 실상사를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법성계를 강연하며 '지금 이 순간 죽은 내 자식이 어딘가에 서 또 다른 모습으로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다"며 "이 얘기를



불한당은 '불교를 한글로 전하는 모임'이란 뜻으로 2013년 9월 창립돼 매일 첫째·셋째주 수요일 저녁 6시 정기 모임을 열고 있다. 지난 8월 19일에는 도법 스님을 비롯해 10여명 회원이 참석해 발제를 이어갔다.

### 2013년 9월 창립... 월 2회 모임

### "초등학생도 이해할 불교만들기" 목표 <법성계> <열반종요> <수심결> 등 번역 번역 방식과 해석 달라 재미 '쏟아'

듣고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야'라는 이해만 되도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법성계를 통해 인간사회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현재 도법 스님은 가장 처음 번역한 <법성계>를 심화·연구해 남원 실상사에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법문하고 있다.

한편 번역주 작가는 지금까지 번역한 내용을 향후 책으로 엮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번역주 작가는 "2018년부터 <수심결>이 <금강경>과 함께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적용된다면, 불한당이 수심결을 조금 더 매끄럽고 정확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향후 종단에 교과서 내용으로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번역 완성단계에 이른 법성계 또한 번역본을 정식 출간할 목표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주제발표에 나선 최승태 대불련발 전위원장은 대불련 비전과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캠퍼스 포교를 통한 청년불교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부대중과 함께 대불련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며 "출가자가 감소하는 요즘 시대에 재가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대불련 동문들의 역할"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동문대회에는 어린이·청소년 불교학교를 함께 열고 동문들의 자녀도 참여토록 했다. 자녀들을 위한 반야심경 및 사찰예절 교육, 찬불가 배우기, 불교 동화 시경, 불국사 및 석굴암 참배 등 진행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것은 청년들이 불교 이념을 통해 마음 계발을 이끌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청년들이 하나 된 신행 운동을 펼쳐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주제발표에 나선 최승태 대불련발 전위원장은 대불련 비전과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캠퍼스 포교를 통한 청년불교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부대중과 함께 대불련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며 "출가자가 감소하는 요즘 시대에 재가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대불련 동문들의 역할"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동문대회에는 어린이·청소년 불교학교를 함께 열고 동문들의 자녀도 참여토록 했다. 자녀들을 위한 반야심경 및 사찰예절 교육, 찬불가 배우기, 불교 동화 시경, 불국사 및 석굴암 참배 등 진행됐다.

박아름 기자

## 부처 석왕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 8월 20일~29일 석왕사 경내서... 칠월칠석·백중문화제 등 '다채'

지난해 8월 스리랑카 정부가 부처 석왕사에 기증한 부처님 진신 사리를 친견하는 행사가 열린다.

부처 석왕사(주지 영담)는 칠월칠석인 8월 20일부터 칠월백중인 8월 29일까지 '부처님진신사리 친견법회와 칠월칠석 및 백중문화제'를 개최한다. 첫째 날인 8월 20일 봉행되는 진신사리 친견법회에서는 스리랑카 대통령이 직접 기증한 진신사리 1과와 1898년 인도 카필라성 발굴된 진신사리 1과가 공개된다. 인도 카필라성 발굴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와스까두웨 마힌다완사 스님이 석왕사에 기증했다.

이번 행사의 증명법사는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으로, 매일 각기 다른 주제로 특색 있는 소행사가 진행된다. 주제는 △8월 20일 '부처님과 중생이 상통하는 날, 자비의 편지 쓰기' △8월 21일 '약사여래 부처님 친견하는 날' △8월 22일 '베트남 전쟁 희생자 천도의 날' △8월 23일 '한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이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왼쪽)와 1898년 영국의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햄이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 카필라성에서 발굴한 부처님 진신사리(오른쪽)

국·스리랑카 문화교류의 날' 등 9개다. 특히 22일에는 베트남 다낭시 대관암사에 모실 아미타부처님 점안법회, 23일에는 스리랑카 와스까두웨 마힌다완사 스님의 '스리랑카의 와스까두웨 마힌다완사리신앙'을 주제로 법문하는 등 다채로운 불교 의식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 행복수업, '아남 톱텐' 방한 수련법회

### 8월 31일부터 '통첸닝틱 및 췌 수행' 등 진행

행복수업 명상수행학교(대표 해봉, 이하 행복수업)가 아남 톱텐 린포체 스님을 초청해 세 번째 방한 수련 법회 '알아차림의 기적'을 열었다.

수련 일정은 △8월 28~30일 서울 동국대 국제센터 '대중수련' △8월 31일~9월 4일 티벳 남파파 금강승 예비수행 '통첸닝틱 수련' △9월 4~7일 번뇌끊기 수행 '췌 수행'이다. 대중수련은 각각 28일 오후 7시, 29일과 30일 오전 8시 30분 열리며 부분참가도 가능하다. 통첸닝틱 및 췌 수행은 문경 한산사서 안거(숙박)수련으로 진행된다.

행복수업은 "통첸닝틱 수행을 직접 구전 전승하는 곳은 한국에서 행복수업이 유일하다"면서 "췌 수행도 원래 단계가 매우 높은 수행이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니,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남톱텐 스님은 티베트 동부 지역서 태어나 티벳 불교의 남파파 전통에 따라 수행했다. 라마 추르 로, 췌포 초펠, 라마 갈양, 직메 퉁족 린포체 등 뛰어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후,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에 다르마 재단을 설립했다. 현재 미국내 36개, 유럽 8개, 아시아 2개 지부를 운영 중이다. 문의(070)8812-2231

박아름 기자

## 법련사, 불일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 9월 1일 개강... 명상지도사 과정도

송광사 서울본원 법련사(주지 진경)가 제2기 불일아카데미 신입생을 9월 1일부터 모집한다.

불일아카데미 제2기 과정은 크게 불교 입문반과 경전반으로 나뉜다. 불교입문반 주요과목은 불교 기본교육과 보현행원품 강의이며, 경전반에서는 불교기초과정을 이수한 자들이 <지지심체요철>을 배우게 된다. 강좌는 총 3개월 과정으로 수업료는 각 10만원(교재비 포함)이다. 불교입문반

은 9월 3일부터 매주 목 오후 1시, 경전반은 9월 1일부터 매주 화 오후 1시 법련사 2층 불일문화회관에서 실시된다.

아울러 명상지도자를 위한 명상상담프로그램 '인경 스님의 명상교실'도 새롭게 신설됐다. 9월 7일 개강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동 장소서 열린다. 인경 스님은 동국대에서 간화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회장을 역임 중이다. 문의(02) 733-5322 박아름 기자

## 대불련, 전국동문대회 '다시 만나다' 성료

### 8월 15~16일 경주 등지서... 5백여 명 참석

### '청년불교' 부흥 방안 모색 특강

### 동문 가족 등 5백여 명 함께해

### 연극·어린이불교학교 등 '다채'

"94년 조계종 종단개혁 핵심 주체였던 대불련 동문들은 최근 개혁정신이 역행하는 현실 과보 속 다시 한 번 정법구현을 위해 바로잡아가겠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회장 백

효흥, 이하 대불련총동문회)는 8월 15~1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및 불국사 등지서 제 13회 전국동문대회 '대불련, 다시 만나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서 대불련총동문회는 특강을 열고 청년불교운동 부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어울림마당 및 연극관람 등 친목도모 시간을 가졌다.

15일 오후 2시 동국대 대강당에서는 입재식을 봉행했다. 백효흥 회장은 대회사로 "이번 동문대회는 대불련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향후 50년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대불련, 다시 만나다'라는 슬

로건을 내걸었다"며 "이를 계기로 불법을 자손만대에 전하기 위한 젊은 불자 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전국 15만 대불련 동문들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아울러 '청년불교운동'을 주제로 이계열 법림선원장 특강도 진행됐다. 이계열 법사는 "지열해져 가는 경쟁 구도 속 청년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불안감을 안고 산다. 바로 이러한 때 불교가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돼 줘야 한다"며 "불교계서 그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나 기구를 만들어 청년들을 불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사는 "무엇보다 선행해야할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 범패·작법무 - 불교예술포럼

#### ◆교 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포럼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5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5년 9월 8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시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천도재, 49재 의식

처음부터 (시련, 대령, 관육)

◇원서교부 : 2015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5년 9월 4일 금요일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전범용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평가지원사업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